

지역 상권 살리고 할인도 받고...지역화폐 인기

광주상생카드 5400억 판매
목포 열흘만에 1227건 발급
농협은행 나주사랑카드 출시
10% 할인혜택 등 지역민 호응

“동네 상권 살리고 쓸쓸한 할인 혜택 누리세요.”
최대 10% 할인을 내건 지역화폐가 은행권을 만나 기존 지류형(종이)에서 카드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광주시 지역화폐 ‘광주상생카드’는 출시 1년 만에 판매액 5400억원을 넘겼고, 목포·나주 등이 체크카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지역민 활용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와 나주시는 16일 나주시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나주사랑카드 시스템개발 및 운영 ▲발행 및 이용 홍보 ▲판매 및 이용 서비스 제공 등 관련 업무 전반에서 유기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나주사랑카드는 지류화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나온다. 기존 지류 상품권의 단점인 부정유통 사전 방지는 물론 발행비용, 판매 및 환전 수수료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농협 측은 설명했다.

NH농협카드와 한국조폐공사는 지난달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조폐공사 모바일 앱 ‘작’을 통해 금



서육원(왼쪽 세 번째)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장과 강인규(왼쪽 네 번째) 나주시장이 16일 나주시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체크카드형 ‘나주사랑상품권’을 다음달 중순께 내놓기로 했다.

용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카드발급부터 충전, 사용내역, 잔액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육원 농협은행 전남본부장은 “나주사랑카드가 본격 유통되면 지류형 상품권 선호도가 낮은 공공기관 임직원과 직장인, 청년층의 이용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지역화폐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시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지난 2007년 2월부터 ‘나주사랑상품권’을 287억원 상당 발행해왔다.

이 상품권을 사용하면 구매 금액의 8% 상당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주사랑상품권 사용처는 기존 1200곳에서 이달

중순 2848곳으로 늘어났다.

‘○○사랑상품권’이라는 이름의 지역화폐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 존재감을 발휘하면서 점차 다양한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모바일 앱을 활용한 지역화폐는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7월 현재 모바일 충전형태 지역화폐를 사용하거나 개발 중인 지자체는 대전과 부산, 울산, 세종, 김포, 익산, 철국, 공주 등 7곳이다.

지역화폐 대표 사례로 꼽히는 광주상생카드는 출시 1년을 맞아 체크카드 8만 4827건, 선불카드 144만6096건 등 총 153만923건으로 발급됐다. 광주상생카드 형태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10월 기준 90.85% 소진됐다.

광주상생카드로 지역상권에서 이용한 금액은 5380억원이 넘는다. 체크카드 이용액은 1286억2800만원, 선불카드 구매액은 4095억9500만원에 달한다.

업종별 이용액을 보면 동네마트(679억 2600만원)와 식당(559억5100만원)에서 쓴 금액이 전체의 23%를 차지한다.

광주은행과 목포시가 협업해 이달 초 내놓은 ‘목포사랑카드’는 열흘 만에 1227건(체크카드) 발급됐고 6200만원 상당이 동네상권에서 쓰였다. 이 카드는 매일 50만원 한도로 구매금액의 6% 상당을 돌려받는 ‘캐시백’(7월은 10%) 혜택이 있으며, 광주은행은 9월까지 10만원 이상 이용 고객을 추천해 경품을 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은행, 기준금리 0.5%로 동결

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을 유지한 0.50%로 동결했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유지,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난 3월16일 ‘빅컷’(1.25%→0.75%)과 5월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 금리를 내렸다.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로 유지됐다.

한은 측은 “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축소 등에 힘입어 안정된 모습을 나타냈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 지속, 수요측면에서의 낮은 물가상승압력 등으로 0%대 초반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



내다봤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본부세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사업 안내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16일 관내 중소수출입기업과 관세사무소를 대상으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화상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수출입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화주 부담이지만 지난 1일부터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적극적인 검사로 위해물품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해 수출입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검사비용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해당되지만 올해는 예산의 범위내 따라 중소기업만 지원 대상이 된다. 세관

검사 과정에서 화주가 부담한 컨테이너 상·하차료, 운송료, 적·출입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화물은 선박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이며 항공화물과 벌크(BULK) 화물은 제외된다.

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관검사결과 수출입법령 등의 위반이 없는 물품이어야 하고, 세관장이 정수하는 관세 등을 체납하지 않은 업체여야 한다.

화물검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 등 첨부서류를 구비해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금 투자 수익률 예금의 29배

코로나19 여파로 안전자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올해 금 투자 수익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6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린 제테크 수단은 금이었다.

이 기간 KRX 금시장에서 1kg짜리 금현물의 1돈(3.75g) 가격은 21만2025원에서 26만1423원으로 23.29% 상승했다. 지난해 말 금을 사든 투자자라면 올해 들어 적어도 20%를 웃도는 투자 수익률을 올린 셈이다.

이는 정기예금 가입자가 이 기간 이자로 얻은 수익률의 29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말 연 1.50%의 금리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의 경우 지난 10일 현재 기간 수익률이 0.79%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캠핑·피서객 잡아라”...대형마트 주말 할인전

이마트 ‘리미티드 딜’ 진행

롯데마트 ‘숙성 민어회’ 판매

주말 피서객들의 장보기가 늘어남에 따라 대형마트들이 주말 한정 할인전을 펼치고 있다.

16일 광주지역 4개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할인 가격에 내놓은 양파 매출은 1년 전 보다 161% 급증했다.

지난 주말 7000원에 선보인 수박 매출도 16% 올랐고, 멸치(38%), 달걀(21%) 등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리미티드 딜’이라는 이름을 붙여 일부 품목을 할인 가격으로 내놓은 이마트는 이번 주말도 관련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18·19일 광주·전남 7개 점포를 포함한 전국 이마트는 국내산 파프리카를

개당 880원에 선보이고, 레스토랑 등심(호주산 100g 2480원), 생고등어(마리당 1990~3990원), 국내산 생새우(100g 2980원) 등도 할인 가격에 내놓는다.

세탁용 세제 모든 품목은 2개 살 때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9일까지는 캐나다산 대형랍스터를 신세계 포인트를 적립하는 경우 3만원 대의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 구매 수량은 1인당 2마리로 한정됐다.

16일부터 일주일 동안에는 ‘햇 수미감자’ 2kg을 기존 3분의 1 가격에 선보인다.

김양호 이마트 광주점장은 “협력업체와 사전 기획과 자체 마진 축소 등을 통해 매일 10여 가지 상품을 물량 한정으로 초저가에 판매하고 있다”며 “일회성 행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엄선해 지속

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도 16일부터 일주일 간 고급보양식으로 꼽히는 ‘숙성 민어회’를 선보인다.

올해 4~5월 롯데마트 장어와 전복 매출이 각각 118.4%, 40.6% 증가하는 등 최근 고급보양식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

민어는 공급이 부족한 여름에는 가격이 kg당 7만~8만원까지 올라가는 고급생선 이어서 대형마트에선 쉽게 선보이지 못했지만 이번에 합리적 가격으로 출시하게 됐다고 롯데마트는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자연산 민어의 신선도를 높이고, 감칠맛과 부드러운 식감을 극대화했으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시설을 갖춘 공장에서 가공·포장했다고 밝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